

## 광주국제영화제 '스위트 하트 초콜릿'으로 막 올립니다



'스위트 하트 초콜릿'



광주국제영화제(8월 29일 ~ 9월 2일·메가박스 광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개막작 등 상영작이 공개됐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동체)는 7일 영화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막작 '스위트 하트 초콜릿' 등 상영작을 발표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함께하는 평화'라는 주제에 맞춰 24개국 92편(장편 47편, 단편 45편)의 영화를 선보인다.

올해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광주영화제가 재도약을 꿈꾸는 해다. 예산은 지난해 1억7000만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2억원이다. 고무적인 건 비록 적은 액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끊겼던 국비 지원의 물꼬를 떴다는 점이다.

현재 국비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모두 6개로 지원 규모는 35억원 수준이다.

또 '중국의 송혜교'로 불리는 최고 스타 임지령을 포함, 30여명의 외국 영화인이 레드 카펫을 밟는 등 7년만에 대규모 게스트들이 광주를 찾는다.

정동체 집행위원장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예술 잠재력은 충분해 위상에 걸맞는 국비 지원 영화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어느 해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올 해 행사를 잘 치러 국비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직위는 또 올해 '드라마 어워즈'를 신설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영화 뿐 아니라 드라마로까지 영상 콘텐츠를 확장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3회째를 맞는 김대중 노벨영화상도 선정하며 영화제 수익금의 일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기탁할 예정이다.

개막작은 시노하라 테츠오 감독의 중국·일본 합작 영화 '스위트 하트 초콜릿'이다. 임지령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가슴 뜰만한 로맨스물이다. 폐막작은 스페인 이민자 가족이 미국에서 경마 선수로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인류 평화와 존엄을 다룬 영화제 메인 섹션인 '휴먼리티 비전'과 '월드 비전'에서는 올 진리교의 종교 테러에 참여했던 신도의 이야기를 그린 '사랑은 어디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영국·풀란드 합작영화 '인형은 울 수 없다', 슬로바키아의 전통무용을 소재로 한 '부서진 유리 위의 댄싱' 등을 만날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페밀리 시

네마'에서는 강아지 스노우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사랑해요 엄마', 칭타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반란을 그린 '소년의 미소' 등이 상영된다.

가슴 따뜻한 예술 영화를 만나는 '힐링 시네마'에서는 비구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길 위에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 등을 상영한다.

특별상영작으로는 북한·밸기에·영국 합작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를 선보인다. 탄광 노동자 김영미가 공증곡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조작위축이 추진했던 '꽃파는 처녀' 등이 북한 체제 선전이라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선정된 영화다.

'그리운 배우, 최진실' 눈길... 폐막작 '스테블 라이프'

24개국 92편 상영... 29일~ 9월2일 메가박스 광주

中 스타 임지령 등 해외 영화인 30여명 참석

'그리운 배우, 최진실' 눈길... 폐막작 '스테블 라이프'



'Farmer Jack'



'김동무는 하늘을 날다'



특별전에서 만나는 故 최진실

### "영화제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뛸게요"

영화제 홍보대사 최윤영씨



"평화를 주제로 한 의미 있는 영화제인데 티켓 수익도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되는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광주영화제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뛸게요."

7일 열린 광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장에는 영화제를 홍보할 '피스 프렌즈(Peace Friends)로 배우 최윤영(28·사진)씨가 참석,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부천영화제를 통해 처음 레드카펫을 밟았던 그녀는 광주영화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영화제를 홍보하게 됐다.

단국대 연극영화과 휴학중인 최씨는 드라마 '내 딸 서영이'와 최근 종영한 '여왕의 교실'로 많이 알려졌으며 영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배우다. 배우나·하지원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코리아'에서 순진한 남한 측 탁구 선수로 열연했던 그녀는 'マイブレイ 미니드레스', '무서운 이야기' 등에도 출연했다.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제 자

신을 많이 알릴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독립영화 작업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직접 좋은 시나리오를 찾아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비슷한 또래의 배우, 감독, 스텝들과 함께 배우고 의논하며 활영하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드라마, 상업영화, 독립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최근 뮤승완 감독이 총괄 디렉터로 참여한 단편 프로젝트에 참여, '커플링' 촬영을 마쳤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최저가 7만원... 남도예술은행 7주년 토요경매 참가하세요 10일 진도 운림산방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지원으로 지역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가 7주년을 맞아 최저가 7만원 특별 할인경매 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2일 토요그림경매 7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11시 진도 운림산방에서 '7주년 특별 토요그림경매'를 실시한다.

70~80% 저렴한 가격에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소품액자(그림작품), 전통 합죽선 작품들의 특별경매를 시작해 7만원에 선보이는 '7·7 이벤트'도 진행된다.

남도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그림 그리는 진돗개 등 진돗개 전연과 명검과 사진찍기, 엽색공예·짚공예·서화 그리기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통 문화체험, 전남도립국악단과 진도 운림예술인촌의 국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한편 남도예술은행은 생활 기반

이 열악한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

동 지원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지금까지 170여명의 지역 작가들이 제작한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작품을 엄선해 총 2900여점을 구입했으며 313차례 실시한 토요경매를 통해 2300여점을 판매했다. 문의 061-280-580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지역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가 7주년을 맞았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 28석, 16석 룸완비)



구 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 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 일, 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 YONAMJA 유·스퀘어점

### 오는 길



매콤한 오남자 필리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Vongole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하니고르곤줄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본점 Yuseo Main Branch Yuseo Station 1F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